

2016. 4. 15. 금요일

대구환경공단 제10호

중 국 환 경 소 식 지

수석대표 최현상 (☎ +86 186-2606-1134 / choihs9@hanmail.net)
부대표 김기곤 (☎ +86 186-2606-1194 / giraffeland@hanmail.net)
중국 강소성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보과기빌딩 B청사 403실. (☎:070-4137-8009)

1. 북경 중한도시환경사업 협력교류회 주최 및 항주 슬러지처리 포럼 주제발표



○ 지난 3월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은 한·중 합자사업 중 슬러지연료화 사업수주 등을 위하여 항주 슬러지처리 포럼 참석 및 북경 기술교류회를 주최 하였습니다. 항주에서는 중국 도시상하수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시상하수도 전문위원회 회의 및 슬러지처리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국 슬러지관리 정책방향 및 슬러지연료화” 주제로 발표(이사장)를 하였으며, 장위에 중국건설부 도시건설국 부국장, 기업인 등 800여명과 토론을 통하여 슬러지 연료화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한 현지 환경기업(5개)과 슬러지연료화 기술 상담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경에서는 대구환경공단과 중국 IEPA(국제 에너지 환경보호 협회)가 주관한 한·중 도시 슬러지처리 기술과 사업합작 교류회에서 “한국 슬러지관리 정책방향 및 성공담보제”를 발표 (이사장)하였으며, 리젠양 IEPA 사무총장, 기업인 등 150여명과 중국(북경) 도시슬러지 처리 및 성공담보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토론회를 통하여 중국 슬러지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공담보제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측(대구환경공단, 엔바이오킨스), 중국측(HPCA, EERI)하수슬러지 모델 추진 합작을 위한 MOU 체결을 하였으며 중국 중림국제그룹 등 3개 기업과 기술교류 제의를 받는 등 중국 정부 및 기업인으로 부터 한국의 슬러지정책에 큰 관심을 받는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 중국 북경행사 “한국 슬러지관리 정책방향 및 성공담보제” 언론보도

- 보도일자 : 2016. 03. 31

- 보도내용 및 주요인사 발언 내용

중국의 현재 슬러지처리는 도시와 농촌 오수처리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오수처리 시설 중 많은 슬러지처리 시설은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거나, 효율이 낮으며 에너지 소모가 많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약점이 있다.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슬러지를 아무데나 적재하거나 버려 환경에 2차 오염을 가져와 인민들의 건강에 새로운 위협을 가져온다. 왕위칭 중국환경과학학회 이사장은 슬러지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외에 슬러지 또한 중요한 자원이다. 무해화 처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재활용하여 기업과 사회에 재정을 창조하여야 한다. 왕위칭 중국환경과학학회 이사장은 한국의 슬러지처리 프로젝트를 정부와 기업이 성공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한국의 “성공담보제” 정책은 매우 심도 있게 배울 가치가 있다. 한국 대구환경공단 윤용문 이사장님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매일 1만톤 이상의 슬러지가 발생한다. 2014년 하루에 1만톤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건조연료화 탄화 재활용시설에서 발전연료로 바뀌었다고 했다. 2012년 슬러지 해상투입이 금지된 이후 대략 70%의 슬러지가 발전연료로 전환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이런 환경 신기술이 신속히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성공담보제도 때문이다. 성공담보제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환경기술기업,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허락하여 기업이 자금을 선 투자하여 환경신기술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의 안정성을 검증받고 검증 결과가 성공되면 공정투자자금을 지불하고 협의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공개된 자료에 보면 전세기 8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PPP(정부와 사회자본 합작)모드를 도입하였다. 핵심적 목적은 기초시설과 공공사업분야에 사회 자본을 끌어들여 공공산품의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높이려는데 있다.

중국에서도 PPP방식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PPP프로젝트에 대한 운영경험 부족 사례를 지도할 능력배양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국제에너지절감환경협회(IEEPA) 리쥘양 사무총장은 정책과 시장 간의 관계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정책내용의 명확한 이해와 현실적 상황의 적응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슬러지처리 산업을 에너지절감 환경산업과 경제발전의 관계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회의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에너지절감 환경프로젝트와 기술측면에서의 직접적인 매칭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공담보제도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도입하여 중국 에너지절감 환경산업에 PPP모드를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중국 도시환경치유에 정부와 사기업이 협력하여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토론회가 되었다.

2. 이싱환보과기공업원(이하 환과원) 중국환경시장 취재

- 언 론 사 : 중앙SUNDAY(중앙일보 최준호 기자)
- 취재일자 : 2016. 02. 24
- 보도일자 : 2016. 03. 13
- 인터뷰 내용

“한국 환경기업의 제품은 유럽·일본 등과 비교해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다. 중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수준이다.”

지난 2월 24일 중국 이싱에서 만난 주쉬핑(朱旭峰) 중국이싱환보과기공업원 주임(이사장)은 한국 전문가였다. 그는 10년 전부터 중국 환경기업들의 한국 파트너를 찾기 위해 한국을 40번 이상 찾았다고 한다. 그간 수많은 한국 기업, 지자체 관료들과 양해각서(MOU)에 사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모두들 그때뿐 실천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그는 한국 환경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시점은 향후 3~5년 안에 끝날 것이라며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치 흥정하듯 상대를 재촉하는 말투에서 중국 남방인 특유의 상인 기질이 느껴졌다.

- 왜 하필 한국에서도 대구를 선택했나. 수도권 등지에 좋은 기업이 많았을 텐데.

“대구가 가진 위기 극복의 경험과 거기에서 우러난 노하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내가 만난 대구시의 모든 분이 열정이 뛰어났고 우리와 같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대구는 아주 정확하고 옳은 선택이었다.”

- 대구시에서 무엇을 봤나.

“여러 곳을 수십 번 둘러봤지만 그중 하수처리장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하수처리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잘 가꾸진 공원 같은 느낌이었다. 특히 하수처리장 위를 태양광발전시설로 채우고 전기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는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이었다.”

- 최근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환경산업의 전망도 따라가는 것 아닌가.

“다른 분야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환경산업은 예외다. 중국은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환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제 기존 공장들이 스스로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난해 환경산업은 20% 성장했으며, 중앙정부는 올해 환경산업의 성장 목표를 지난해보다 훨씬 더 크게 잡을 정도로 기대가 크다. 환경산업 중 물 시장 규모만 2016~2020년까지 17조 위안(3,200조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기업들은 중국시장 진출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기술 유출과 규제 등의 우려 때문에 꺼린다.

” 한국 기업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옛일이다. 우리가 대구시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바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별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서 성공하기 어렵다. 엔바이오킨스·우진과 같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 옛날처럼 싼 인건비만 생각하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한국 기업이 들어온다면 역시 죽어 나갈 수밖에 없다. ”

3. 중국 이싱국제환보전시관 한국관 및 입주업체 기술 취재



○ 방 송 사 : CCTV(취재주제 : 위대한 발견)

○ 취재일자 : 2016. 03. 18

○ 주요내용

이싱국제환보전시관 내 이싱환보과기공업원이 2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제공한 500㎡의 공간에 한국관을 신축, 한국의 검증된 10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기술을 소개하자면, 현재 중국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슬러지 건조기술, 슬러지 탈수시설, 생물반응조의 반응조건을 향상 시키는 교반기술, 방류수질을 감시하는 TMS기술, 독자개발한 세계수준의 계측기 등 한국에서 검증된 수처리 분야의 제일 중요한 10가지 기술이 입주해 있으며, 한중 기업 간 업무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검증된 우수한 기업이 중국 환경병원에 입주하여 중국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술진단, 처방 등을 협력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 환경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4. 중국진출 희망기업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6. 3. 31(목) 16:00 / 대구환경공단

○ 참 석 자

- 공 단 : 이사장 등 10명
- 기업체 : 38개 기업 48명
- 대구시 : 박기환 물산업과장 등 4명

○ 주요내용

해외환경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물기업을 중심으로 물산업클러스터 해외진출분과 구축을 위하여 대구시 박기환 물산업과장 등 4명,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등 10명, 기업체 38개 48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10여개 기업은 중국 현지 기술설명회 참석 의사를 표명했고, 향후 물산업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대기, 토양, 소각 등 환경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물산업클러스터 해외진출분과를 구축하는 설명회가 되었습니다.

5. TFT 조직원 변화

○ 이상대 수석대표는 약 18개월('14.11.8~'16.3.11)간의 한-중 환경기업교류 및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후 우리공단 미래전략처장직으로 임명되어 귀국하였으며, 최현상 수석대표가 부임 하였습니다. 이상대 미래전략처장은 본국에서 기업 가까이서 중국 현지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국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한중TFT간의 코디업무를 수행하며, 한중 양국 기업 간 환경교류에 크게 기여 하여 온 장세환 한중협력기구 대표는 공식적인 코디업무는 종료하고 개인적으로나마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향후 공식 코디업무는 그동안 한국TFT팀과 함께해온 김봉춘 회장이 환과원으로부터 업무에 성실함을 인정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